

# '무심코 다운로드' 금물

## 광주지검 저작권 위반 37%가 소년범

인터넷에서 영화·소설·만화 등을 무심코 내려받았다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죄의식과 위법 인식이 없는 청소년인데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고소'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광주지역 일선 경찰은 매년 2천건에 가까운 저작권 고소 사건을 처리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법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광주지검에서 처리한 저작권위반 사범은 총 1천50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인 567명이 10대 소년사범이었으며, 이 중 541명(96%)은 법무법인가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합의금은 ▲중·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으로 정액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저작권 위반은 합의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기소된 네티즌들도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담양에서 경찰로부터 저작권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고등학생이 부모의 꾸중을 묵묵히 참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고소 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전국적으로 2003년 1만369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3만2천44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급증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때문에 일선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부터 부모들과의

전화통화,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디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일선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며칠씩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면서 "더구나 거짓 조사를 마쳐놓으면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하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광주지검도 관내 고등학생과 학생 생활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80억대 사이버 짝퉁 판매 조직 적발

## 목포세관, 5명 검거

목포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중국에서 밀반입된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 명품 가방, 시계 등 80억원 대를 판매한 짝퉁 판매조직 5명을 붙잡아 상표법위반으로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목포세관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강모(32)씨 등 5명은 인터넷 쇼핑

몰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주문받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루이비통 가짜 가방 등 5천600여점(시가 80억원)을 판매한 혐의다.

강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 광동성에서 운영하면서 중국 인터넷 폰 등을 이용하고 상품대금 입금 계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할

을 보였다.

또 중국내 짝퉁 수집책, 한국내 통관책, 국내 배송책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세관은 지난 10월 중순 이들의 밀수행태를 신고 받고 관련 인터넷사이트, 국내 물류회사, 도매상 등을 파악한 후 배송처, 판매처, 택배회사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 수시 면접 체증

겨울비가 내린 27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사거리가 수시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는 7.5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목포 9mm, 무안 6.5mm, 영광 5.5mm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위직량기자 jrwi@

## 'GP 수류탄 사건' 부대 내 이병 체포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GP(전방초소) 내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수사본부는 27일 황모 이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GP에 근무 중인 황 이병을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어제 저녁 긴급체포했다"며 "수사관들이 황 이병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입대한 황 이병은 최전방 근무에 적응하지 못

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황 이병은 사건 당일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GP 상황실에서 이 모 이병의 탄통에 든 수류탄을 몰래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본부는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수류탄을 감한 진한 녹색 테이프가 황 이병의 관복대 근처에서 발견돼 이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 사전 영장 청구기로

검찰이 이르면 내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억원 이상의 환경연합 공금을 횡령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열 대표가 환경연합으로부터 1997년 1억2천만원, 2002년 7천만원을 받은 게 공금 횡령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열 대표는 이와 관련해 1996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지을 때 사재(私財) 3억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환경센터 건립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스

## 나원침 (7664)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안 : 061) 337-0571

## 저작권 위반 예방 '골든벨 대회' 열린다

### 광주지검 내달 1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예방 교육을 나섰다.

광주지검은 다음달 1일 광주·전남 지역 고교생과 생활 담당교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과 성범죄 예방 및 준법정신 높이기 위한 '제1회 범 생활 골든벨 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대 응지관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회적 문제

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 예방을 위해 광주지검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 대회에는 각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광주 지역 고교생 300명과 광주지검 관내 전남 지역 고교생 100명, 각 학교 생활담당교사 100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법무법인의 저작권 위반 소송 납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행사부 이재만 검사

는 "전국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날로 늘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KBS 1TV '도전 골든벨'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작권 관련 문제 약 40문제가 출제되고 ▲저작권 침해 시 처벌 관련 문제 ▲저작권 침해 방지 방법 등이 소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목포 소파 더미 불 탄 시신은 중학생

목포의 한 공터에 버려진 소파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된 사건(본보 27일자 7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목포 M중학교 2년 K(15)군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K군이 소파 더미에서 잠을 자던

중 소파에 불이 붙어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담장과 소파 더미 사이에서 빈 담뱃갑이 발견됐고 K군이 이곳에서 담배를 자주 피웠던 점 등으로 미뤄 K군이 피우다 버린 담배꽂이가 소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이날 K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 및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K군은 최근 무단결석을 자주 했으며 친구들에게 "휴학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족 등의 진술에 따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K군은 사고 당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남성 헤어 기능장학 **大山프림모낭여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골든벨** (SBS·MBC '시상대상 방법')

**가발**

초슬림!!

최신분 최자거로 최고에 만족을 드립니다!!

귀여운 플러쉬 안경을 놓여주는 **성형용 플러쉬거** 있습니다.

대우점: 061-337-0571, 061-337-0572  
호남점: 061-337-0571-0572

**서울식카바레 나이트**

VIP 전용바 **금정식카바레**

**방실이 VS 조용필**

개막: 오후 5시 - 9시30분 / 나이트: 오후 9시30분 - 새벽 2시

**서울식카바레 나이트**

(대인동 북대백화점 편)